

‘V+O+一下’와 ‘V+一下+O’의 어순 제약 요소 고찰

김 영 민*

<目次>

I. 들어가는 말	III. 어순 제약의 양상과 분석
II. 어순 제약 요소	I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현대중국어 술부 내 목적어와 동량사 및 시량사 간의 어순문제는 여러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이 대체적이었다. 동량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구성원의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량사와 목적어의 어순을 일괄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동량사와 목적어간의 어순의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a. 在他47年的生命歷程中，參加大小戰鬥472次。
그의 47년 인생역정에서 크고 작은 전투에 427번 참가했다.
- a'. 他一共做了13次手術，換上了一塊白金做的膝蓋骨。
그는 모두 합해서 13번의 수술을 하고는 백금으로 만들어진 슬개골로 갈아 끼웠다.
- b. 吳認為這是一個可以利用的機會，如能直接去日本一趟，會看到許多有用情況的。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구교수

우는 이것은 이용 가능한 기회로, 만약 직접 일본에 한 번 다녀올 수 있다면 많은 유용한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b'. 去年7、8月間, 孫敏去了一趟日本。

작년 7, 8월에 쉰민은 일본에 한 번 갔다 왔다.

예문(1)에서 제시된 동량사 ‘次’, ‘趟’은 (1a)(1b)와 같이 ‘동사+목적어+동량사구’의 어순으로 쓰일 수 있을 뿐 아니라, (1a')(1b')와 같이 ‘동사+동량사구+목적어’의 어순으로 쓰일 수도 있다.¹⁾

기존의 학자들은 동량사와 목적어간의 어순 문제를 목적어의 성격, 동량사의 종류, 동사의 성격, 동사와 목적어간의 의미관계 등의 각도에서 고찰하였다.²⁾ 특히 方梅(1996)는 기존의 논의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어순을 제약하는 요소로 목적어의 지시성, 목적어의 정보성(신정보/구정보), 목적어의 길이 등을 제시하고, ‘VNM’과 ‘VMN’ 두 어순의 기능상의 차이 및 어순 변화의 추이를 밝혔다. 그런데 이상의 논의들은 목적어와 동량사의 어순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 있어 개별 동량사의 의미특징에 대한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순 결정에 있어 동량사의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된 경향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량사 가운데에서도 의미 기능이 가장 다양한 ‘一下’를 대상으로 삼아 ‘동사+一下+목적어’와 ‘동사+목적어+一下’의 어순 제약 문제를 고찰하고, 老舍, 錢鍾書, 王朔, 王小波의 작품에서 추출한 409개의 예문³⁾을 바탕으로 어순의 통시적인 변화 경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예문(1)에서 제시되지 않은 동량사 ‘回’, ‘遍’, ‘場’, ‘番’, ‘頓’, ‘通’ 등과 차용동량사 역시 ‘동사+목적어+동량사’와 ‘동사+동량사+목적어’의 두 어순을 모두 취할 수 있다.

2) 呂叔湘(1980), 劉月華(1983), 馬慶株(1983), 李臨定(1986) 등.

3) 예문은 베이징대 코퍼스(www.ccl.pku.edu.cn)에서 추출한 것이다.

II. 어순 제약 요소

‘一下’는 동작의 횟수를 나타낼 뿐 아니라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며,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화용표지로도 쓰인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一下’의 다양한 의미가 술부 내 어순 결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술부 내 구성 요소인 ‘동사’, ‘목적어’, ‘一下’ 및 이들 사이의 어순 제약 양상을 살펴보고 ‘一下’ 역시 어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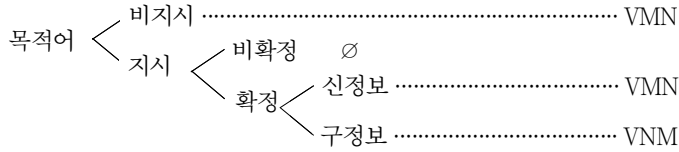
1. 목적어⁴⁾의 특징

方梅(1996)는 목적어의 지시성은 화자가 ‘VNM’과 ‘VMN’ 가운데 하나의 어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그녀의 논의에 따르면 N이 비지시성을 띠는 경우 ‘VMN’의 어순을 취한다. 한편, 비확정적인 N은 동량사와 공기할 수 없으며, 확정성을 띤 N 성분의 경우도 그 확정성의 정도에 따라 선호하는 어순에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데, N이 확정적일 수록 ‘VNM’의 어순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하였다.⁵⁾ 또한 목적어의 정보 성격이 구정보일수록 목적어는 동사와 동량사 사이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정보일수록 문장의 뒤로 위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2) NP의 지시성과 신·구정보에 따른 동량사와 목적어간의 어순 경향

(方梅: 1996)

-
- 4) 이하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기술하는 경우에는 기존 학자들의 약호인 ‘V’, ‘M’, ‘O’, ‘N’, ‘NP’ 등을 그대로 쓰고, 본 논문의 내용 전개 시에는 목적어는 ‘목적어’ 혹은 ‘O’로, 동사는 ‘동사’ 혹은 ‘V’로 표기한다.
 - 5) 方梅(1996)는 陳平(1987)을 따라 N성분의 확정성은 ‘대명사 > 고유명사 > 호칭사 > 這 / 那 (+양사) + 명사 > 소유성 관형어 + 명사 > 원형보통명사 > 제한성 관형어 + 명사’순이라고 보았다.



方梅(1996)는 목적어의 지시성에 따른 동량사와의 어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분석하였으나, 분석 대상이 동량사 전체인 관계로 개별 동량사의 의미특징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一下’는 의미기능이 단일하지 않은 관계로 어순 문제가 단순히 목적어의 지시성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a. “問你的女兒，她知道!” 瑪力顫著指了凱薩林一下。
 “당신의 딸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알아요.” 메리는 떨면서 캐서린을 한 번 가리켰다.
- b. “都別走，要走你走。”我指了一下杜梅。
 “모두 가지마, 가려거든 네가 가!” 나는 뚜메이를 잠깐 가리켰다.

위의 예문(3a)와 (3b)의 경우 ‘凱薩林’과 ‘杜梅’라는 호칭사가 동사 ‘指’의 목적어로 쓰여 (3a)와 같이 ‘V+O+一下’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3b)와 같이 ‘V+一下+O’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호칭사의 확정성이 높기 때문에 ‘VMN’의 형식을 취한다고 언급한 方梅(1996)의 견해와 차이가 있다.

- (4) a. 小孫拍了小陳的肩膀一下，眼睛發出些賊光。
 쏘 군은 천군의 어깨를 한 번 치고는 눈에서 사악한 눈빛을 발했다.
- b. 端著一盤菜的劉大媽拍了一下她的後腦勺。
 요리를 손에 받쳐 든 리우 아주머니가 그녀의 뒤통수를 한번/살짝 쳤다.

예문(4a)와 (4b)에서는 ‘호칭사/인칭대명사+的+신체기관’의 형식이 동사 ‘拍’의 목적어로 쓰여 각각 ‘V+O+一下’와 ‘V+一下+O’의 어순을 취하고 있다. 지시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두 목적어가 상이한 문형을 취하고 있다.

方梅(1996)에 따르면 ‘제한성 관형어+명사’는 비한정의 경향이 강하다. 또한 목적어의 음절수가 길어지면 VMN의 어순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5) a. 楊重伸手按了一下左手那個鑲了鐵門的人家的門鈴。
양중은 손을 내밀며 왼손 쪽에 있는 철문에 끼워져 있는 그 초인종을 잠깐/살짝 눌렀다.
- b. 小姑娘說著，走到櫃臺的後面，捻了牆上的小鈕子一下，登時屋中奏起樂來。
꼬마 아가씨가 말을 하면서 카운터 뒤로 걸어가서 벽에 있는 작은 단추를 한번 비틀자, 순식간에 방안에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5a)와 (5b)의 두 예문은 수식성분이 부가되어 목적어의 음절수가 상당히 길다. 이와 같이 목적어의 음절수가 많아지면 (5a)와 같이 VMN의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예문 (5b)의 경우는 VNM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제한성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一下’와 목적어간의 어순을 고찰해 본 결과, 동량사 전체를 대상으로 논의한 方梅(1996)의 분석과는 다른 양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一下’의 의미기능과 동사의 특징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一下’의 의미기능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相原茂(1984)는 ‘一下’를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一下₁’과 동작이 이루어진 시간을 나타내는 ‘一下₂’로 구분하고 목적어를 수반하는 양상

을 조사한 결과, 목적어가 (인칭)대명사나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一下₁’이건 ‘一下₂’이건 모두 ‘V+一下+O’의 어순을 취하고, 목적어가 (인칭)대명사 혹은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인 경우에는 ‘一下₁’은 ‘V+O+一下₁’의 어순을 취하고, ‘一下₂’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인칭)대명사인 경우에는 ‘V+O+一下₂’의 어순을, 목적어가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인 경우에는 ‘V+一下₂+O’의 어순을 취한다고 밝혔다.⁶⁾

相原茂(1984)가 제시한 규칙에 근거하여 위의 예문 (3)(4)(5)를 살펴보면, 목적어로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사가 쓰인 예문(3)의 경우는 相原茂가 제시한 규칙에 정확히 들어맞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相原茂(1984)에서 말하는 ‘목적어가 (인칭)대명사나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가 아닌 명사’의 경우는 ‘點一下頭’의 ‘頭’나 ‘敲一下門’의 ‘門’ 등과 같은 ‘VO’ 형식의 ‘O’성분으로 수식어가 부가된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

한편, 甘智林(2005)은 相原茂(1984)와는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는 ‘V+一下₁’이 대명사 혹은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 목적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V+N+一下₁’의 어순만 가능하지만, 목적어가 대명사 혹은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가 아닌 경우 ‘V+一下₁+N’과 ‘V+N+一下₁’의 두 어순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V+一下₂’가 대명사 혹은 사람을 지칭하는 목적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V+一下₂+N’과 ‘V+N+一下₂’형식이 모두 가능하고, 목적어가 대명사 혹은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아닌 경우 ‘V+一下₂+N’의 형식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甘智林(2005)에서 제시한 예문을 살펴보자.

6) 相原茂(1984)의 ‘O’와 ‘一下’의 어순배열 양상

	O가 대명사(P)/사람 지칭 명사(人)	O가 대명사/사람 지칭 명사 아님
一下 ₁	V + P/人 + 一下	V + 一下 + O
一下 ₂	V + P + 一下 (대명사) V + 一下 + 人 (사람 지칭 명사)	V + 一下 + O

- (6) a. 白文氏皺著眉, 咬了一下嘴唇, 眼漏差點下來, 忙轉身往回走。
b. 既然人家說能幫我, 我就利用一下他唄。

[甘智林(2005) 재인용]

예문(6)은 甘智林(2005)에서 제시된 ‘V+一下₁’과 ‘V+一下₂’가 목적어를 수반하는 경우로, 甘智林은 (6a)의 ‘一下’는 ‘一下₁’, (6b)의 ‘一下’는 ‘一下₂’라고 하였다. 그러나 (6a)의 ‘一下’를 ‘兩下, 三下...’ 등으로 변환이 불가능하므로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一下₁’로 보기 어렵다. 또한 ‘V+一下₂+대명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6b)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미실현(irrealis)’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에 쓰인 ‘一下’는 동작이 일어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화용표지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甘智林(2005)이 제시한 규칙 역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영민(2009)은 ‘一下’를 구체적인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一下₁’, 동작이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一下₂’ 그리고 화용 표지로 쓰이는 ‘一下₃’으로 구분하였다.

- (7) a. 他輕輕拍了胸膛一下, 然後大拇指在空中一挑。
그는 가슴을 가볍게 한 번 치고 나서 엄지손가락을 공중으로 쳐들었다.
b. 她斜眼瞪了一下丈夫, 低頭看牌。
그녀는 남편을 잠깐 찰려보더니 고개를 숙여 카드를 본다.
c. 他勸夏經平也像他一樣改變一下對子女的教養方法。
그는 샤징핑에게 것처럼 자녀에 대한 양육 방법을 좀 바꾸라고 충고했다.

예문(7a)에서 ‘一下’는 ‘拍’라는 동작이 발생한 구체적인 횟수를 나타내는 ‘一下₁’로 동작이 발생한 횟수가 한 번 이상인 경우는 수사 ‘一’ 대신에 ‘兩, 三, 四...’등을 쓸 수 있다. 예문(7b)에서 ‘一下’는 ‘瞪’이라는 동작이

이루어진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一下₂’로, 여기서 ‘一’는 특정한 ‘하나’라는 수량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⁷⁾ 즉, 동량사 ‘下’의 구체적인(원형적인) 의미의 약화 과정을 통해 ‘一下’는 좀 더 덜 구체적인 의미인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一’와 ‘下’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동량구라기보다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어휘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예문(7c)에서 ‘一下’는 동작이 발생한 횟수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改變’이라는 동작에 대한 주어 ‘他’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一下₃’에서 ‘一’와 ‘下’의 의미는 한층 더 탈색되고 추상화되어, ‘一下₃’은 화용표지(pragmatic marker)⁸⁾의 기능을 한다. 즉, ‘一下₃’은 명령·청유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동작을 명령하거나 요청할 때 화자가 제안하는 행위동작의 강도를 약화시킴으로써 화자의 명령이나 요청이 청자의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힘든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자가 화자의 요구를 승인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一下’의 의미는 호응하는 동사의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一下₁’은 주로 순간류 동사와 호응하고, ‘一下₂’는 활동류 동사 혹은 단계성상태류 동사와 호응하며, ‘一下₃’이 호응할 수 있는 동사의 범위는 훨씬 더 확대되어 순간류 동사, 단계성상태류 동사, 활동류 동사뿐 아니라 성취류 동사와도 호응할 수도 있다.⁹⁾ 예문(7)을 다시 살펴보면, (7a)에서 ‘一下’는 순간류 동사 ‘拍’가 이루어진 동작의 구체적인 횟수를 나타내고 있고, (8b)에 쓰인 ‘一下’는 활동류 동사 ‘瞪’이 나타내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짧은 시간을 나타낸다. 한편, (8c)에서 ‘一下’는 성취류 동사 ‘改變’이 나타내는 동작의 강도를 약화시켜 청자가 동작을 수행하는데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7) 이 경우 ‘一’는 더 이상 특정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낸다기보다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동작의 개별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兩, 三...’ 등과 같은 다른 수사로 바꿔 쓸 수 없다.

8) 문장의 명제적 의미와 관계없이 화자의 발화 의도만을 표시하는 성분.

9) 김영민(2009) 참고.

‘他’의 태도를 나타낸다.

그런데 김영민(2009)에서 제시된 이러한 경향은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은 ‘V+一下’형식에서 얻어진 결과인 까닭에 ‘V+O+一下’와 ‘V+一下+O’ 두 문형의 경우 ‘一下’의 의미기능과 동사의 종류가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8) a. 我用腳尖在桌子下輕輕地碰了一下你的腳尖，低聲道：你是真不知道呢，還是故意裝糊塗？

내가 발끝으로 탁자 밑에서 가볍게 너의 발끝을 잠깐(살짝) 건드리면서 낮은 소리로 “너 정말로 모르는 거니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체하는 거니” 라고 말했다.

b. 老人翻眼看了韻梅一下，不再說甚麼。

어르신은 눈을 부라리며 윈메이를 한 번 쳐다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8a)와 (8b)는 각각 순간류 동사 ‘碰’과 활동류 동사 ‘看’이 목적어와 ‘一下’를 수반한 예문으로, (8a)에서 ‘一下’가 순간류 동사와 함께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작의 횟수가 아니라 동작이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졌음(혹은 이은 이를 통해 동작량이 약하다는 의미)으로 해석되며, (8b)의 경우에는 ‘一下’가 활동류 동사와 함께 쓰였으나 ‘一下’는 동작이 이루어진 짧은 시간이 아니라 동작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횟수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어순 제약의 양상과 분석

2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V+O+一下’와 ‘V+一下+O’ 두 문형의 어순이 단지 동사 혹은 목적어 혹은 ‘一下’의 개별적인 작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어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V+O+一下’와 ‘V+一下+O’ 문형이 갖는 의미 역시 ‘一下’와 목적어의 성격에 영향을 주

고 있음을 고찰할 것이다. 즉, 동사와 목적어 혹은 ‘一下’의 선형적인 배열 순서 및 이로 인한 술부 내 위치 역시 중요한 의미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V+O+一下’와 ‘V+一下+O’의 어순 제약 양상을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통시적인 어순 변화의 경향이 이러한 어순의 의미기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V+O+一下’와 ‘V+一下+O’의 어순 제약 양상

본 절에서는 목적어를 수반한 순간류 동사 ‘碰’과 활동류 동사 ‘看’이 ‘一下’와 결합하는 다양한 양상의 고찰을 통해 술부 내 목적어와 동량사 ‘一下’의 어순 배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순간류 동사 ‘碰’의 예문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V+O+一下₁’의 어순을 취하며, ‘一下’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횟수를 나타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목적어로 호칭사, 수식어를 수반한 명사가 쓰인 경우에는 ‘V+一下+O’의 어순도 조사되었다.

(10) 忽然有甚麼東西碰了他一下, 他左右看, 沒有甚麼。

갑자기 어떤 물건이 그를 한 번 쳐서, 그가 좌우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10)와 같이 인칭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V+O+一下’의 어순을 취한다. 이는 相原茂(1984), 方梅(1996), 甘智林(2005)에서 증명되었다. 동작의 대상을 대명사로 표현했다는 것은 해당 지시 대상이 현재담화 공간(Current Discourse Space: CDS)¹⁰⁾ 내에 지시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¹¹⁾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이 높다¹²⁾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10) 담화가 진행되는 어느 순간에 의사소통의 기초로서 화자/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개체들과 그 관계들로 이루어지는 심리공간의 일종이다. 이 공간에 있는 개체들은 현재 논의 중이며 화/청자의 공통 의식 속에 존재하므로 연상이나 추론 혹은 일반 지식에 의해서 화/청자가 즉시 접근 가능한 것이다. 김종도(2002)

하다. 이러한 대명사는 정보의 성격 면에서 보면 구정보이다.¹³⁾ 馮勝利(1996)에 따르면 술부 내 동사 뒤에는 하나의 강세음 성분만을 허용하며, 강세음이 부여되는 성분이 술부 내 초점 성분이 된다. ‘V+O대명사+一下’에서 대명사의 지시성과 정보성, 그리고 ‘一下’의 통사적인 위치 등으로 인해 ‘一下’에 강세음이 부여되며, ‘一下’는 원형적인 의미인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게 된다.

(11) 湯阿英用胳膊輕輕碰了郭彩娣一下。

탕아잉은 귀차이떠를 팔로 가볍게 한 번 쳤다.

(11)은 목적어로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쓰인 경우로 ‘V+O+一下’의 어순을 취하고 있다. Langacker(1991/1999: 63)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특정 인간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례화¹⁴⁾를 전제하며 비명시적으로 양을 명세화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름을 토대로 화자와 청자는 특정 개인을 유일하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대명사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연상이나 추론 등을 통해서 CDS내에서 즉시 접근

11) 대명사는 명사를 대체하지만, 명사와 달리 폐쇄부류에 속하며, 내용의미(content meaning)가 아닌 도식적의미(schematic meaning)를 제공하며, 문맥의존적인 성격을 갖는다. V. Evans & M. Green(2006/2008: 520)

12) 접근가능성이 높으면, 정보 처리를 위한 노력의 양이 적게 들고 낮으면 많이 든다. 대명사는 명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처리에 노력이 적게 든다. 따라서 대명사는 맥락 가운데에서 지시대상을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 명사는 지시대상의 복원이 상대적으로 어렵다.(van Hoek: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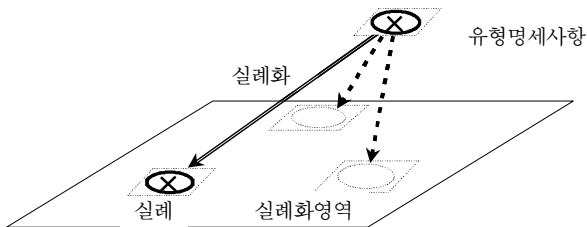
13) 陸丙甫(2005)는 ① 인칭대명사의 경우 [+유일성(unicqueness)], [+구정보], ② 이름(Full name)과 사람을 지칭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는 [+유일성], [±구정보], ③ 기타(성을 제외한 이름, 관계 호칭, 직업명)등의 경우는 [-유일성], [±구정보]의 의미자질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14) ‘유형(Type)’은 어떤 점에서 동일하게 보이는 속성들의 집합이고, 실례(Instant)는 특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 독특한 물리적 개체이다. 유형은 특정한 위치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결여되어 특정한 개체를 지시할 수 없다. 이러한 유형이 실례화 공간에 맞을 내리게 하여 실례화 공간의 특정 지역에 실례를 위치시키는 것을 실례화(instantiation)라고 한다.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술부 내 초점과 강세음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보다는 ‘一下’에 부여되며, ‘一下’는 원형적인 의미인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게 된다.

- (12) a. 周炳十分高興，使勁碰了二哥一下。
 찌우빙은 너무나 기뻐서 둘째 형을 한 번 힘껏 쳤다.
 b. 新郎悄悄地碰了一下新娘，兩人齊聲喊了一聲“媽”。
 신랑이 살그머니 신부를 잠깐(살짝) 건드리자, 두 사람은 소리를 모아 ‘어머니’라고 외쳤다.

(12a)와 (12b)는 목적어로 사람을 지칭하는 호칭사가 쓰였다. 호칭사는 일반 명사에 비해서는 접근가능성이나 확정성이 높지만, 대명사나 고유명사와 달리[-유일성(unicqueness)]의 자질을 갖으며, 문맥에 따라서는 신정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호칭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12a)와 같이 ‘V+O+一下’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新郎’이 목적어로 쓰인 (12b)의 경우와 같이 ‘V+一下+O’의 어순을 취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이는 相原茂(1984)나 甘智林(2005) 등이 제시한 규칙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문말에 위치하는 목적어에 강세음과 초점이 부가되며, ‘一下’는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짐(혹은 이를 통해 동작량이 약하다는 의미)을 나타낸다. 이는 통사적인 검증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위의 (12b)는 ‘碰了兩下/三下/幾下新郎’으로 쓸 수 없다. 이를 통해 순간동사인 ‘碰’이 사람을 지칭하는 호칭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 목적어와 ‘一下’의 위치에 따라 ‘一下₁’



혹은 ‘一下₂’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3) 順子半信半疑地與他碰了一下杯。

순즈는 반신반의하며 그와 잔을 한 번 부딪쳤다.

(13)은 원형명사가 목적어로 쓰였는데, 이는 相原茂(1984)가 제시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일반명사’가 목적어로 쓰인 경우이다. 이 경우 목적어는 아직 실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형(Type)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응되는 대상이 없으며, 지시성의 각도에서 보면 비지시적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비록 문말에 위치하고 있지만 초점성분이 되기 어려우며 강세음을 부여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비록 ‘V+一下+O’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초점과 강세음이 ‘一下’에 부가되어 ‘一下’는 원형적인 의미기능을 갖는다.

(14) a. 楊曉冬碰了郭燕來的肩膀一下。

양샤오둥은 귀엔라이의 어깨를 한 번 툭 쳤다.

b. “干”, 錢康碰了一下李緬寧的杯子, 一飲而盡。

“건배!”, 치엔강은 리미엔닝의 잔을 살짝 부딪치고는 단숨에 다 마셨다.

c. 他的夫人不小心碰了一下帶電的金屬棍, 只聽“轟”的一聲, 一團電火閃過。

그의 부인이 실수로 전기를 띤 금속 막대기를 한번/살짝 건드리자, 단지 ‘굉’하는 소리가 들리고 온통 불꽃방전이 번쩍였다.

(14a)와 (14b)는 모두 소유격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목적어로 쓰인 경우로, 동일한 ‘관형어+명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14a)는 ‘V+O+一下’의 어순을 취하고 있고, (14b)는 ‘V+一下+O’의 어순을 취하고 있다. 명사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게 되면 원형 형식에 비해 내연이 확대되고 외연이 축소되어 확정성이 높아진다. 화자가 목적어에 수식성분을 부가하

는 것은 청자가 잘 모르는 지시대상에 대한 청자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14a)의 경우 신체기관이 소유성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지만, CDS내 청자 혹은 화자의 신체인 경우에는 접근가능성이 높아 강세음을 부여받는 초점 성분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화자의 의도가 개입된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14b)와 같이 초점성분으로 쓰일 수도 있다. 한편, (14c)와 같이 제한성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목적어의 경우는 대부분 문말의 위치하며 초점 성분으로 쓰이는 경향이 강하다.

본 논문에서는 ‘一下’가 술부 내 초점 성분이 되어 강세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즉, 문말에 위치하게 되면 ‘一下’의 원형적인 의미기능을 발휘하여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지만, 목적어가 초점 성분이 되어 강세음을 부여받게 되면 ‘一下’는 그 상대적으로 원형적인 의미기능이 약화되어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 이루어지는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본다. 즉, 술부 내 목적어의 종류, 목적어와 ‘一下’의 상대적인 위치로 실현되는 문형 역시 일정한 의미기능을 갖고 있으며, 게 되어 ‘一下’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활동류 동사의 경우에도 일관성 있게 실현된다. 아래의 예문(15)~(19)는 활동류 동사 ‘看’이 목적어와 ‘一下’를 수반한 다양한 경우이다. 예문 조사결과 활동류 동사 ‘看’이 목적어와 ‘一下’를 수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V+一下₂+O’의 어순을 취하며, ‘一下’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기능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목적어가 인칭대명사,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인 경우에는 ‘V+O+一下’의 어순도 조사되었다.

(15) 白書記用聰明的、感激的目光看了他一下。

바이 서기는 총명하고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잠깐 보았다.

예문 (15)는 (10)과 마찬가지로 인칭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로 비록 ‘V+O+一下’의 어순을 취하고 있지만, 대명사의 특징으로 인해 ‘V_{활동류}+一下’와 같은 의미기능을 하여 동작이 이루어진 짧은 시간을 나타낸다.

- (16) a. 小李機靈地看了一下小劉, “小劉! 看! 朝咱們來了!”
리 군은 영리하게 리우 군을 잠깐 보고는, “리우 군, 봐, 우리 쪽으로 왔어!”
b. 他說到這兒, 看了徐義德一下.
그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는 쉬이더를 한 번 보았다.

(16a)와 (16b)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목적어로 쓰여 각각 ‘V+一下+O’와 ‘V+O+一下’의 어순을 취하고 있다. 相原茂(1984)에서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가 목적어로 오는 경우 (16a)와 같이 ‘V+一下+O’라고 하였으나¹⁵⁾ 실제 코퍼스 조사 결과, 활동류 동사가 술어로 쓰인 문장에서 ‘V+O+一下’의 어순 역시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대명사와 같이 CDS 내에서 상대적으로 즉시 접근 가능하며 구정보의 성격이 강해 술부 내 초점은 ‘一下’에 부여된다. 이와 같이 ‘一下’가 술부 내 초점 성분이 되어 강세음을 갖게 되면 ‘一下’는 원형적인 의미인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게 된다. 실제로 (16b)의 ‘看了徐義德一下’는 ‘看了徐義德兩/三/幾下’로 바뀌 쓸 수 있다.

- (17) 他的眼在看了一下父親和兒子之後又極起好奇地盯在對面的甚麼東西上。
그의 눈은 아버지와 아들을 잠깐 본 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맞은편의 어떤 물건을 주시했다.
(18) 我看了一下手表, 不由得緊張起來。
나는 손목시계를 잠깐/살짝 보고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 他看了一下又長又熱的沙灘, 忽然又改變了主意。
그가 길고도 뜨거운 백사장을 잠깐 바라보더니, 돌연 또 생각을 바꾸었다.

15) 甘智林(2005)에서 ‘V+一下₂’의 경우 ‘V+O+一下₂’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실제 예문을 고찰한 결과 모두 비실현(irrealis)의 문장들로 ‘一下₂’로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甘智林(2005)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7)과 (18)에서는 각각 사람을 지시하는 호칭사와 원형명사가 목적어로 쓰인 경우로, 특히 (18)과 같이 ‘看+一下+원형명사’의 형식에서 원형명사는 순간류 동사에서와 달리 지시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강하다. (19)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목적어로 쓰인 경우로 ‘V+一下+O’의 어순을 취한다.

이상의 예문 (15)~(19)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 활동류 동사 역시 술부 내 목적어의 특성, 목적어와 ‘一下’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문형 역시 일정한 의미기능을 갖게 되어 ‘一下’의 의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一下₃’의 경우는 목적어의 성격과 상관없이 그 위치가 술어와 목적어 사이에 고정되어 ‘V+一下+O’의 형식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

(20) a. 我只是想判斷一下局勢。

나는 단지 정세를 좀 판단하고 싶을 뿐이다.

b. 看來，有必要總結一下前一段的工作了。

이전 단계(시기)의 작업을 좀 총결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문(20a)(20b)에 쓰인 ‘判斷’, ‘總結’는 성취류 동사이며, 문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실현(irrealis)의 사건 혹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一下’는 화용표지로 쓰여 화자의 명령이나 요청을 청자가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힘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화자의 의도를 주로 나타낸다. 화용표지로 쓰이는 ‘一下₃’은 ‘一下₁’, ‘一下₂’가 목적어의 유무 혹은 목적어의 성격에 따른 술부 내 위치에 따라 문법의미에 변화가 있는 것과 달리 동사와 목적어 사이라는 고정된 통사 위치에 쓰인다.

2. ‘V+O+一下’와 ‘V+一下+O’의 의미기능 해석

인지언어학에서는 상이한 형태는 상이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따라서 언어 형식이 달라지면 그 형식이 나타내는 의미 역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언어학의 기본적인 가설이 바로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즉, ‘V+O+一下’와 ‘V+一下+O’는 상이한 어순을 취하고 있으므로 나타내는 의미 역시 상이하다. 이는 언어구조 속에 개념구조가 직접 반영된 언어의 도상성(iconicity)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¹⁶⁾ 도상성에는 개념의 양이 형태의 양과 비례한다¹⁷⁾는 ‘양의 원리(quantity principle)’, 두 개념이 연이어 사용될 때 어느 것이 먼저오고 어느 것이 나중에 오는지의 순서에 관련된 ‘순서의 원리(sequencing principle)’, 개념적 거리와 언어적 거리가 비례관계를 형성한다는 ‘거리의 원리(distance principle)’가 있다. 거리의 원리는 다시 ‘근접성 원리’와 ‘직접성 원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접성 원리(proximity principle)는 개념적으로 가까울수록 형태나 구조적으로도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는 원리이고, 직접성 원리(immediateness principle)란 직접적인 개념일수록 그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원리이다.¹⁸⁾

본 논문에서는 순서의 원리와 거리의 원리 가운데 근접성의 원리를 술부 내 목적어와 ‘一下’간의 어순의 변화를 해석하는데 적용하고자 한다. Tai(1985: 50)는 순서 도상의 원리를 중국어 통사에 적용하여 시간순서원칙(The Principle of Temporal Sequence: PTS)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은 ‘두 통사 단위 간의 상대적인 순서는 그들이 나타내는 개념 영역 내의 시간 순서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것으로 중국어의 대부분 통사구조가 시간순서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한편, 어순의 차이라는 것은 술부의 중심 성분인 동사로부터의 통사적인 거리가 달라진다는 것이며, 통사적인 거리의 원

16) 도상성의 성격은 아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 될 수 있다. 첫째, 도상성은 언어의 형태와 그 형태가 나타내는 사물 간의 유사성이 라 할 수 있다. 둘째, 도상성은 언어의 형태와 의미 간에 나타나는 유사성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도상성은 언어구조와 개념구조간의 유사성으로 확장될 수 있다. 임지룡(2004) 참고.

17) Clark & Clark(1977/1988: 485)은 사고의 복잡성은 표현의 복잡성으로 반영되어, 표현이 복잡할수록 그것이 반영하는 사고가 복잡하다는 복잡성 원리를 제안하였다.

18) 임지룡(2004) 참조.

근은 영향력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⁹⁾ 이는 도상성 원리 가운데에서 근접성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²⁰⁾ 이와 관련하여, 楊德峰(2005)는 동사와 복합방향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는 ‘VC₁C₂O’, ‘VC₁OC₂’, ‘VOC₁C₂’, ‘把OVC₁C₂’의 네 가지 형식 모두 역시 시간순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²¹⁾ 楊德峰의 논의에 따르면 술부 내 각 형식은 목적어를 경계로 하여 하나의 과정 혹은 단위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물론 복합방향동사와 동량사 ‘一下’는 그 통사적인 특징이나 의미 면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술부 내 선형적인 배열의 양상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V+O+一下’는 술부 내에서 ‘V一下’보다는 ‘VO’의 의미관계가 더 밀접하므로 [[VO][一下]]로 분석할 수 있고, ‘V+一下+O’는 ‘VO’보다는 ‘V一下’의 의미관계가 ‘VO’보다 더 밀접하므로 [[V一下][O]]로 분석될 수 있다. 즉, ‘V+O+一下’가 나타내는 문형의 의미는 ‘목적어 O를 지배하는 동작 V가 발생한 횟수가 一下(한 번)’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V+一下+O’는 ‘동작 V가 짧은 시간 동안 O를 지배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方梅(1996)는 VNM은 다른 문법수단의 도움 없이도 이미 발생한 사건을 나타낼 수 있지만, ‘VMN’ 형식을 써서 이미 발생한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보구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了’, ‘過’ 등과 같

19) 언어 표현들 간의 거리는 그들 간의 개념적 거리와 상응한다.(Haiman 1983: 782)

20) 이것은 게슈탈트 법칙에서 ‘근접성 원리’, 즉 개별적인 요소 들 사이에서 거리가 짧은 요소 들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Ungerer & Schmid 1996: 33)는 지각 원리가 언어 구조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뜻한다. 임지룡(2004)재인용.

21) 즉, ‘VC₁C₂O’(拿出來一張紙)는 ‘VC₁C₂’(拿出來)를 하나의 전체 과정으로 인식한다. ‘VC₁OC₂’(走出一個人來)는 ‘VC₁O’(走出一個人)를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C₂’ 혹은 ‘OC₂’(一個人來)를 다른 하나의 전체로 인식한다. ‘VOC₁C₂’(帶一個人過去)는 ‘VO’(帶一個人)를 하나의 전체 과정으로 인식하고 ‘C₁C₂’ 혹은 ‘OC₁C₂’(一個人過去)를 다른 하나의 전체 혹은 과정으로 인식한다. ‘把OVC₁C₂’(把書包放下去)은 ‘把O’(把書包)를 하나의 전체로 인식하고, ‘VC₁C₂’(放下去)를 다른 하나의 전체 과정으로 인식한다.

은 상표지 성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차이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을 'VNM'과 'VMN'의 구조 차이라고 보았다. 즉, 'VMN' 형식의 구조는 [V[MN]]으로 'M'은 'V'의 후속성분이 아니라 'N'의 선행 성분²²⁾인 반면, 'VNM' 구조는 [[VN]M]으로 'M'이 'VN'의 후속성분으로 'VNM' 형식은 '시대표현'을 제공하는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方梅(1996)의 견해에 동의하며, 이와 아울러 '一下'의 미기능 역시 이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김영민(2009)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통시적인 각도에서 보면 '一下'는 '一下₁ → 一下₂ → 一下₃'의 방향으로 문법화가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의미변화 과정은 [공간범주>시간범주>화용범주]의 전이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一下'의 원형 의미는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동작이 이루어진 횟수, 즉 수효를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해당 동작이 완결되었음이 전제된 것이다.²³⁾ 그러나 '一下'가 횟수를 헤아릴 수 있는 공간범주에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범주로 전이되면 이러한 동작의 끝점 보다는 동작이 지속되는 시간이 더 부각되어, 이미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표지 성분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원형 의미를 나타내는 '一下₁'은 문말에서 술부 내에서 초점 성분으로 강세음을 부여받고 동작의 완결을 나타낼 수 있지만, 원형에서 벗어나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一下₂'는 주로 강세음을 부여받기 어려운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위치하고 상표지를 통해 동작의 완결을 나타내게 된다. 의미가 한층 더 추상화된 '一下₃'의 경우는 통사위치가 동사 뒤, 목적어 앞에 고정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강세음을 부여받을 수 없으

22) 본 논문에서 목적어를 경계로 하여 'V+一下+O'를 [[V一下][O]]로 분석한 것과 차이가 있다. 'M'이 'N'의 수식성분인지, 혹은 'V'의 보충성분인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3) 陳忠(2006: 425)은 수량성분은 '시작부터 종결까지의 완전한 관찰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성분이 부가되었다는 것은 사건 혹은 상태가 이미 완결되었음을 함축하며, 특히 동작의 수량을 나타내는 동량성분은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관찰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며 화용표지의 기능을 한다.

3. 통시적 각도에서 본 어순 변화의 경향

본 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老舍, 錢鍾書, 王朔, 王小波의 작품에서 ‘V+O+一下’와 ‘V+一下+O’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고, 두 문형의 변화추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老舍와 錢鍾書(이하 작가그룹 I)과 王朔, 王小波(이하 작가그룹II)의 활동시기가 대략 50년 정도 차이가 나므로, 이 두 그룹 간의 어순 변화의 추이 고찰이 유의미하다고 본다. 베이징대 코퍼스(www.ccl.pku.edu.cn)에서 이 두 작가그룹 작품의 ‘V+O+一下’와 ‘V+一下+O’형식을 추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 一下와 목적어의 어순을 고찰. (베이징대 코퍼스 이용)

		V+O+一下	V+一下+O	합계
작가그룹 I	老舍	109	55	164
	錢鍾書 ²⁴⁾	13	2	15
	합계	122	57	179
작가그룹 II	王朔	39	157	196
	王小波	7	27	34
	합계	46	184	230

조사결과, 작가그룹 I 과 작가그룹II에서 목적어를 수반한 ‘V一下’구문은 각각 179개와 230개였다. 그룹 I의 작품에서 ‘V+O+一下’ 형식은 모두 122개로 전체 구문 가운데 68%인 반면, ‘V+一下+O’ 형식은 모두 57개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작가그룹 I 과 달리 작가그룹II의 경우에는 ‘V+O+

24) 錢鍾書의 예문 가운데에 ‘阿丑就打阿兇一下耳光’, ‘立起來順手給頤谷一下耳光’ 등과 같이 ‘V+NP+一下+NP’의 형식을 취한 용례가 두 개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특수한 경우로 보아 통계에서는 배제하였다.

一下’형식이 46개로 20%에 그친 반면, ‘V+一下+O’형식은 184개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가그룹I과 작가그룹II에서 두 문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위와 같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것은 목적어의 성격과 ‘一下’의 의미기능의 변화 때문이라고 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두 작가그룹 예문에서 분석한 목적어의 종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자.

<표 2> 작가그룹 I 의 목적어 분석

	V+O+一下			V+一下+O		
	老舍	錢鍾書	합계	老舍	錢鍾書	합계
인칭대명사	50	8	58(48%)	-	-	-
호칭사	21	5	26(21%)	3	-	3(5%)
원형명사	14	-	14(11%)	43	1	44(77%)
관형어+명사	24	-	24(20%)	7	1	8(14%)
VP	-	-	-	1	-	1(2%)
S	-	-	-	1	-	1(2%)
합계	109	13	122	55	2	57

작가그룹 I 의 예문 가운데 ‘V+O+一下’와 ‘V+一下+O’ 두 문형의 수량은 122:57로 ‘V+O+一下’의 문형이 ‘V+一下+O’보다 두 배 가량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룹I의 작품에서 출현하는 ‘V+O+一下’형식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대명사, 호칭사 등과 같이 술부 내에서 초점을 부여받기 어려운 성분들이 주로 목적어로 쓰였고, 특히 ‘관형어+명사’의 경우도 대부분 ‘人家的手’ ‘她的新帽子’과 같이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V+O+一下’에서 술부 내 정보의 초점은 ‘一下’이며, ‘一下’는 동사의 유형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원형 의미인 ‘한 번’이라는 동작의 횟수를 나타낸다. 한편, ‘V+一下+O’를 살펴보면, 원형명사가 목적어로 쓰인 용례가 44개로 77%에 이른다. 작가그룹I에서 목적어로 쓰인 원형명사는 ‘點一下頭’에서 ‘點頭’와 같이 목적어와 동사간의 관계가 매우한 경우로, ‘點頭’, ‘橫

心’, ‘皺眉’, ‘發愣’ 등은 ‘VO’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V’와 ‘O’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여 VP로 취급되며 비지시 성분이다. 따라서 ‘V+一下+O’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해당 의미는 ‘V+一下1’과 같다. 한편 ‘관형어+명사’의 형식을 취하는 명사구가 목적어로 쓰인 용례 역시 8개로 14%이고 동사구와 절이 목적어로 쓰인 용례가 각각 하나씩 조사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목적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一下’가 화용표지로 쓰이는 경향이 보인다는 점이다.

- (21) a. 沒有花草可澆灌, 他很想整理一下那棵棗樹,
물을 줄만한 풀과 꽃이 없어 그는 그 대추나무를 좀 정리하고 싶어 한다.
- b. 現在咱們商量一下怎麼分工!
이제 우리 어떻게 분업을 할 것인지 좀 상의해 보자.

위의 예문(21a)은 ‘지시대명사+양사+명사’의 형식을 띤 명사구가, (21b)은 ‘의문대명사+동사’의 동사구가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문장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나타내며, ‘一下’는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화용표지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一下’가 화용표지로 쓰인 용례는 전체 57개 가운데 8개로 그 수가 많지는 않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작가그룹I의 경우에 ‘V+O+一下’의 수량이 절대 다수 많으며, ‘一下’의 주된 의미기능은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어서 작가그룹II의 상황을 살펴보자.

<표 3> 작가그룹II의 목적어 분석

	V+O+一下			V+一下+O		
	王朔	王小波	합계	王朔	王小波	합계
인칭대명사	32	6	39(83%)	6	-	6(3%)
호칭사	3		3(6%)	13	1	14(8%)
원형명사	1	1	2(4%)	49	13	62(34%)
관형어+명사	4		4(8%)	69	11	80(43%)
VP	-		-	2	-	2(1%)
S	-		-	18	2	20(11%)
합계	39	7	46	157	27	184

'V+O+一下'와 'V+一下+O'의 두 문형의 수량을 비교해 보면, 작가그룹 I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작가그룹 I의 경우에는 'V+O+一下'의 문형이 'V+一下+O'의 문형보다 두 배 정도 많았던 것과 달리 작가그룹II의 경우에는 'V+O+一下'와 'V+一下+O'의 수량이 46:184로 'V+一下+O'가 'V+O+一下'보다 네 배 많음을 알 수 있다.

목적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V+O+一下'에 쓰인 목적어는 인칭대명사, 호칭사, '관형어+명사', 원형명사로 작가그룹 I과 분포가 같으며, 각각의 비율 역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인칭대명사>호칭사>관형어+명사>원형명사 순으로 분포 및 의미기능면에서 작가그룹 I과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一下+O'의 목적어를 살펴보면, 목적어에는 인칭대명사, 호칭사, 원형명사, '관형어+명사'뿐 아니라 동사구 및 절이 목적어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작가그룹I의 'V+一下+O'와 달리 인칭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였으며, 작가그룹I에서 'VO'형식의 원형명사 'O'가 목적어로 쓰인 용례가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관형어+명사'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작가그룹I에서 절 형식 목적어의 용례가 하나에 불과한 것과 달리, 작가그룹II에서는 20개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은 方梅(1995)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목적어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一

下'가 목적어의 뒤에서 목적어의 앞에 쓰이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지만, '一下'가 동작이 시간을 나타내는 '一下₂'와 함께 화용표지로 쓰이는 '一下₃'의 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실제로, 'V+一下+O' 가운데 화용표지로 쓰인 구문은 86개로 전체 184개의 구문 가운데 47%에 달한다. 이와 같이 작가그룹II의 예문을 분석해 보면, '一下₁'의 수량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一下₂'와 함께 '一下₃'의 비율이 현격히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V+一下+O'의 목적어의 종류와 양상이 다양해 졌음을 알 수 있다.

IV. 나가는 말

본 논문에서는 언어 구조 속에 개념구조가 반영되어 있다는 인지언어학의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여 'V+O+一下'와 'V+一下+O'의 어순을 제약하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V+O+一下'의 문형에서 목적어는 대체로 접근 가능성이 높은 구정보의 성격을 띠며, '一下'는 초점 성분으로 강세음을 부여 받고, 원형 의미인 동작의 횟수를 나타낸다. 'V+一下+O'에서는 대체로 목적어가 술부의 초점성분으로 강세음을 부여받으며, '一下'는 동사가 이루어지는 짧은 시간을 나타낸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건을 나타내는 'V+一下+O'에서 '一下'는 화용표지로 쓰인다. 이와 같이 문형이 나타내는 의미의 차이는 '一下'가 [공간범주<시간범주<화용범주]로 전이 되는 과정에서 의미기능이 변화하면서 이들이 전형적으로 출현하는 각각의 문형에 영향을 준 결과이다.

< 參考文獻 >

Clark, H. H. & E. V. Clark.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이기동 · 임상순 · 김종도(1988), <<언

어와 심리》, 탑출판사.

- Haiman, J. (1983), Iconic and Economic Motivation. *Language* 59: 781-891.
- Langacker, Ronald(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um II*,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김종도 역(1999), 《인지문법의 토대 2: 기술적 적용》, 박이정.
- Taylor, J. R.(2002), *Cognitive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임지룡·김동환 옮김(2005), 《인지문법》, 한국문화사.
- Van Hoek, Karen (1995), Conceptual Reference Points: A Cognitive Grammar Account of Pronominal Anaphora Constrains. *Language* 71:310-349.
- V. Evans & M. Green(2006), *Cognintive Linguisitcs: An Introduc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임지룡·김동환 옮김(2008),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 陳忠(2005), 《認知語言學研究》, 山東教育出版社.
- 甘智林(2005), <帶賓“V+一下₁”、“V+一下₂”格式的語序問題>, 《長沙鐵道學院學報》 Vol.6 No.1.
- 方梅(1996), <賓語和動量詞語的語序>, 《漢語功能語法研究》, 江西教育出版社.
- 馮勝利(1996), <論漢語的韻律結構及其對句法構造的制約>, 《語言研究》第1期.
- 陸丙甫(2005), <指人名詞組合語序的功能解釋>, 《中國語文》第4期.
- 呂叔湘主編(1980/2000), 《現代漢語八百詞 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 邵敬敏(1996), <動量詞的語義分析及其與動詞的選擇關係>, 《中國語文》第2期.
- 太田辰夫(1987), 《中國語歷史文法》, 北京大學出版社.
- 相原茂(1984), <數量補語“一下”(沙野譯)>, 《漢語學習》第4期.
- 楊德峰(2005), <“時間順序原則”與“動詞+復合趨向動詞”帶賓語形式的句式>.

《世界漢語教學》第3期.

- 김영민(2007), 《현대중국어 양사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_____(2009), <현대중국어 'V+一下'의 의미기능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54》.
 김영희(1995), <화용 표지 “말이다”의 통사론적 고찰>, 《韓國學論集 22》.
 김종도(2002), 《인지문법의 디딤돌》, 박이정.
 이성하(2000),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한규(1996), <한국어 담화 표지어 ‘그래’의 의미연구>, 《담화와 인지 3》.
 임규홍(2003), <국어 정도부사의 화용화>, 《언어과학연구 24》.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_____(2004), <국어에 내재한 도상성의 양상과 의미 특성>, 《한글 266》.
 주경희(2000), <‘좀’과 ‘조금’>, 《국어학 36》.
 _____(2004), <‘좀’ 문법화의 의미·화용론적 연구>, 《국어교육 115》.

<中文提要>

本文基於認知語言學的基本前提——語言結構反映概念結構，主要考察‘V+O+一下’和‘V+一下+O’語序制約因素：在‘V+O+一下’句式，賓語的可及度高，且屬舊信息，‘一下’位於句末，成爲謂語的焦點，表示動作發生的次數；在‘V+一下+O’句式，位於句末的賓語成爲謂語的焦點，‘一下’位於動詞後賓語前，表示動作發生的時間之短或用作語用標記。‘一下’的語意功能從空間範疇轉移到時間範疇，再轉移到語用範疇。在此過程當中，帶有不同語意功能的‘一下’所選擇的句式也有所不同。

주제어 : 一下, 語序制約, 範疇轉移, 語意功能, 相似性